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2 .3(수)	
		작성 문의	사회조정실 보건정책팀 팀장 박은경 / 사무관 김미경 (Tel. 044-200-2294)
엠바고		2.3(수) 9시(회의 직후) 이후 사용	

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정부 협력체계 가동

- 국무조정실장, WHO 권고사항 등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 점검
- 부처별 조치사항 철저 이행으로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

□ 국무조정실(실장 이석준)은 WHO(세계보건기구)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‘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’ 선포(2.1)에 따라,

○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질병관리본부(복지부), 외교부, 법무부, 농식품부, 문체부, 국토부, 안전처

□ 국내에 아직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유입되지 않고 매개 모기 활동이 없는 시기이기는 하나,

○ 중남미,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교류로 국내 유입가능성이 있는 만큼,

○ WHO 권고사항*을 적극 이행하여 지카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, 국내 유입시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는데 관계 부처가 함께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.

* 감시강화, 유입차단, 전파방지, 유입시 의료조치 대비, 여행관련 조치 등

□ 먼저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문

가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, WHO, 감염병 발생국가 등과의 정보공유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.

- 또한 공항·항만 등을 통한 위험국가 입국자 대상 검역* 및 목재, 묘목 등을 통한 모기 유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 동·식물 등에 대한 검역**도 강화한다고 밝혔다.

* 위험국 입국자 모니터링 강화 및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

** 원목은 국내 도착 후 전량 훈증소독하고 묘목 등은 현장검역 후 규제병해충 검출시 훈증소독 또는 폐기

- 둘째, 국내 유입시 바이러스의 전파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 및 의료대비 체계를 강화하고,

* 의료기관에 의심환자 진료시 신고의무 부여,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검체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

-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위험이 높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.

*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 공동, 「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위한 진료가이드라인」 제작·배포(2.3)

- 이와 함께 모기 방제지침을 마련, 지자체 등과 함께 모기에 대한 방역을 강화*하여 모기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고,

* 페타이어, 웅덩이 등 모기서식지 방제, 숲 소독 실시 등

- 전국 공·항만 주변에서의 모기 등 매개체 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,

- 당초 17년에 계획된 모기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앞당겨 올해에 조기 실시하고, 이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.

- 또한 수혈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* 1개월 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채혈금지 및 헌혈장소에 발생위험국가 홍보

- 셋째, 국내외 여행안전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생국가에 대한 최신 정보와 행동수칙 등을 제공하고,
 - 위험지역 출국자 대상 맞춤형 안내메세지 전송, 발생국가 재외공관 등을 통한 안전공지 및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,
 - 관광업계, 항공사* 등과 협력하여 감염증상 및 경로, 예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지속할 계획이다.

* 브라질, 태국 등 발생국가 취항 8개 항공사에 안내방송 실시

-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

- 메르스 사태를 거울삼아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, 확산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,
-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- 이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예방수칙, 최신 질병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,

-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들 스스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.
- 또한 지카 바이러스 발병지역을 방문하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은 물론, 의료기관 등도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여,
 - “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”을 요청했다.